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예배 후 교육관에서 2월 정기임원회가 있습니다.

중구용산지방 지방회가 오늘 오후 3시 광희문교회에서 열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 교회 마당에는 주차를 삼가시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휴대폰은 꺼두시거나 진동 모드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일 공동식사는 드실 수 있는 만큼만 받아 가시고 될 수 있는 한 다 드시기 바랍니다.

대지의 어디에선가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싹과 눈맞춤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레 19:1~2 / 시 119:33~40 고전 3:10~11 / 마 5:38~48
--

합 1:1~4
---------

오늘 식당 봉사 : 유경순 이은옥 박혜경 박미란 하미림 송형운 김훈동 다음 주 식당봉사 : 박미영 문현미 이은주 윤정화 박미란 민병배 박범희 오늘설거지봉사 : 이소혜 강세기 이소애 6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속적인 긴장과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명의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고요한 성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잔잔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지순례 중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지붕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최문희 선생  
김윤정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곽상준 최경미 김경혜 김동호 김신실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종락 박영신 김준호 곽해자 김현주 김혜권 박재임 김혜진  
김희진 박홍재 문복순 문홍일 박인혁 백성래 변재민 이소혜 성지현  
심상숙 안보혜 원주신 윤미경 윤정덕 구성실 이순용 이진영 한양미  
이한림 김명희 장근성 박희순 장기욱 정연희 정종삼 조현권 박아영  
최은미 최철수 곽권희 한성건 정지혜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홍순복  
무명

### 감사헌금

곽권희 김지영 김진중 리우림 배근수 김금순 송동준 김진경 은종인  
이광석 이경희 이선화 이은옥 장근성 박희순 전인섭 한미영 홍성식  
이유리 무명10

### 생일감사헌금

김남중 오복순 백묘현

### 녹색꿈헌금

송희원 안종일 정현주 이진영 한양미 무명5

	백혜숙	박성희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최경미	임정자
	장영숙	신영신	문영혜	장영숙
	노순옥	진정숙	노순옥	문금석
	박홍재	박홍재	문복순	정선희
	권미숙	박미영	권미숙	허정윤
	김금순	김금순	오복순	김금순
	곽권희	윤수진	곽권희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박혜경	심상숙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		

마음으로 읽는 글

## 자작나무

- 왼손으로 글쓰기 -

- 최찬상

낮선 길 걸었다/ 왼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날이었다  
 자작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나의 절반은 가보지 않은 곳임을 알았다  
 싸락눈이 치고 있었다  
 흰 것으로 흰 것을 견디고 있는 자작나무 보며  
 나는 얼마나 더 이 싸락눈을 맞아야  
 한 점 흰빛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한 겹의 얇고 정갈한 피부로/ 스스로를 차게 만들어 차가운 것을 견디는  
 자작나무, 자작나무로 하여 나도 차츰/ 자작나무와 자작나무 사이  
 그 시린 행간을 맨발, 맨몸으로 걸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러면 바람이 후려치는 자국마다  
 빨갱게 피가 들키며, 나의 꺾길도  
 자작나무 꺾길처럼 딱딱 갈라 터질 테지  
 오른손을 다친 날이었다  
 오른편엔 나무가 베어지고/ 집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붐볐다  
 나의 오른편과 왼편 사이 험난한 산맥이 있는 줄 몰랐다  
 낮선 길 걸었다  
 어느새, 싸락눈 공중에서 탁탁 터져 눈꽃 날리고  
 나는 오른손으로 지은 죄 너무 많아  
 끝내 그것 다 하얗게 지울 수 없을지라도  
 폭폭 눈 내리는 저 자작나무 숲길/ 한참을 더 걸어가야겠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십시오.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가치를 붙들며 사십시오.

아멘. 작은 이득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넓고 편한 길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길을 포기하고, 좁고 험해도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있는 길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장영숙 전도사	이범석 목사 기도 : 박혜경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방문성 장로	조지연 선생 백혜숙 권사

2월	영접위원	김인걸 정한구 박범희 박효선 왕영순 박미영
	헌금위원	한상익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 빈 그릇에 담긴 우리 마음

청파교회 식당 배식구 위에는 “밥 한 톨 국물 한 숟가락도 남기지 맙시다”라는 알림문이 밥을 받는 이들을 쳐다보고 있지요. 퇴식구에는 남긴 음식량을 쟀 수 있는 디지털 저울이 있구요. 좀 유난해 보이기도 하는 청파교회의 신앙실천, ‘음식물 안 남기기’는 벌써 그 역사가 14년이나 되었습니다. 2000년 8월 대천 수양회 당시 교인들이 수양회 동안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과자류 먹지 않기’ 등의 규칙 중 ‘음식물 남기지 않기’도 있었던 것이지요. 고집 있는 청파교인들답게 결과는 대천 상동수양관 식구들이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당시 부목사로 사역하시던 해병대 출신 양세훈 목사님이 퇴식구에 떡 버티고 계셨던 것도 이 최초의 성공에 한몫했다고 하시네요. 이후 청파교회는 이를 상시적인 캠페인으로 이끌어 내었고 중요한 교회 내의 전통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전개하여 2006년도에는 여러 교회에서 ‘빈 그릇 서약식’을 이끌어 낸 ‘생명밥상 빈 그릇 운동’보다도 5년여가 앞서는 것이지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전설도 딸려 있습니다. “철수가 보고 있다”는 교회에서는 가장 즐겁게 그리고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누가 음식을 남겨 버릴라치면 많은 교인들의 존경의 대상인 김철수 장로님께서 퇴식구에서 남은 음식을 다 드셔 버렸다는!!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최초의 결심과 의지가 항상 펄펄 살아있기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음식을 남기지 않는 노력은 여전하나 처음 마음이 무엇이었던가가 매번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또 청파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들은 최초 빈 그릇 운동을 하던 결의와 노력, 그리고 대견한 성과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로 그때 공동체의 즐거움과 보람을 짐작만 하고 따르고 있지요. 이제 더욱 자라난 청파공동체가 더 크고 단단하게 세우고 싶은

‘생명밥상 빈 그릇 운동’의 처음 마음은 무엇일까요?

‘밥 한 톨 국물 한 모금’을 지켜낸다는 것은 어렵게 살던 우리 할머니 세대 이야기라, 혹자는 다소 전근대적인 시절의 이야기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어려웠던 시절 내 식구 입에 들어갈 ‘밥 한 톨 국물 한 모금’이 귀했다는 의미라면 ‘전근대적’이란 말도 맞습니다. 이제 여유도 생겼는데 너무 궁상스럽지 않느냐는 것이겠지요. 객관적인 수치로 봐도 전국, 전 세계를 생각하면 청파교회에서 버리는 양이 많아 봤자 얼마나 많겠느냐, 어차피 거대한 바다에 물 한 방울 아니냐는 냉소적인 이성도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다른 생명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속에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의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속에 시대와 수치의 논리는 작아지고 작은 실천의 의지는 커질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남은 부분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이지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음식, 함께 누리지 못하는 가깝고 먼 곳의 배고픈 이웃과 생명의 순환을 생각하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먹는 밥이 바로 그 ‘밥 한 톨, 국물 한 모금’이겠지요. 이것이 청파 공동체가 버리지 않으려 애쓰는 ‘성찬’이 아닐까요? 그리고 보니 우리 교회에는 성찬을 아주 아주 배부르게(?) 드시고 전설까지 남기신 장로님이 계신 셈이죠.

이제 다가오는 새봄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모아 풍성하게 키울 ‘처음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미 녹색교회로서의 청파교회의 명성은 드높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을 뛰어넘고 세상의 패배주의도 품어버릴 만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점심식사 후 깨끗이 비워진 ‘빈 그릇’에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청파교회 환경부 교육팀

<참고> 평화의 길 생명의 길 「청파교회 100년사」, 담임목사님 면담